

완도군,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 본격 추진

군, 국토부 등 7개 중앙부처와 지역발전 투자협약 체결 3년간 182억 투입 해양바이오 연구·지역혁신 기반 구축

완도군이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7일 세종정부컨벤션센터에서 국토부 등 7개 중앙 부처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은 지난 4월 완도군을 비롯한 11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완도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에 맞는 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업이다.

완도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3년간 182억원(국비 91억, 도비 27.3억, 군비 63.7억)을 투자한다.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기

상청이 협조해 5개 단위 사업 내 1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해양치유 바이오 연구단지 조성 등 5개 단위 사업은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혁신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블루존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해 일자리와 소득 창출, 주민복지 서비스 향상 등 지역 활력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도군은 올 하반기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세부 사업별로 단계별 공사 착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신우철(맨 왼쪽) 완도군수가 지난 27일 세종정부컨벤션센터에서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완도군 제공>

'완도사랑상품권' 판매 1400개 업소 가맹점 가입 지역 경제발전 마중물 역할

완도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인 '완도사랑상품권'을 판매한다.

완도사랑상품권은 법정 화폐와 달리 지자체가 발행하고 관리하는 지역화폐로, 정부와 전남도가 발행 비용의 할인율을 지원한다.

상품권은 5000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등 4종이며, 발행 기점으로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 연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상품권 구입은 농협, 수협, 축협, 광주은행, 산림조합, 신한, 새마을금고 등 35개 지점에서 가능하다.

현재 1400여개 업소가 가맹점으로 가입했다.



진도군, 개인택시 조합원 관광안내 현장교육 썬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개장 따라 친절서비스 기대

진도군이 최근 전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진도군지부 조합원 44명을 대상으로 지역의 관광지를 대상으로 관광 안내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개인택시 종사자 관광안내 현장교육은 오는 19일 썬비치 호텔&리조트 진도가 개

장함에 따라 택시기사들이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관광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군은 관광객들에게 생동감 넘치는 관광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 용장성, 진도타워, 운림산방, 남도진성, 세방낙조 등 진도군

주요관광지 탐방과 교육을 실시했다.

또 향후 주요관광지에 대한 설명을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육자료도 함께 배부해 호평을 받았다.

진도군 관계자는 "썬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개장으로 많은 관광객이 진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광객들이 가장 편하게 이용하는 운송수단인 택시 종사자들의 관광안내교육이 관광진도의 이미지를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해남 산이면 산두마을 100kW 규모 '농민참여형 영농태양광' 시범사업 선정

전남도, 사업비 2억 지원

해남군 산이면 산두마을이 '2019년 농민참여형 영농태양광' 전남도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농민참여형 영농태양광 시범사업은 주민들이 마을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과 농업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전남도에서 100kW 규모의 태양광 설치 사업비 2억여원을 지원한다.

해남군은 사업 첫해인 지난해 산이면 해월마을이 선정되던 이어 산두마을이 연달아 선정됐다.

전남도내에서는 올해 6개소를 포함해 총 8개소가 추진되고 있다.

영농태양광발전시설은 마을조합의 소유로 태양광 설치로 인한 발전수익은 임대료와 유지보수 등 기본경비를 제외한 수익 전액을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에 활용하게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두번째로 실시되는 농민참여형 영농태양광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마을단위의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참여 기업 모집

해남군, 관내 사업장 대상...선정엔 인건비 90% 지원 혜택

해남군이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는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해 제공하고 청년의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참여 대상 기업은 해남군 관내 사업장 중 마을에 기반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서 사업 지원 후 고용승계가 가능한 기업이다.

4대보험 미가입, 국제·지방세 체납 및 3개월이내 감원율이 있는 사업장은 참여할 수 없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2년간 청년활동가의 인건비 90%(최대 월 180만원)와 사업장 4대보험료 부담금(25만원 한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 기업체는 오는 12일까지 해남군 인구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청년마을로 사업은 신규 청년일자리 창출과 마을사업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진도군의회 '불합리한 국립공원 구역 해제해 달라'

개발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 전면 재조정 촉구

진도군의회가 불합리한 국립공원 구역 해제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인허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진도군의회는 최근 열린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도서지역 대부분은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공원 내 개발행위 제한으로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해상국립공원 구역을 전면 재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1981년 지정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전체 면적 2266㎢ 가운데 진도군이 속한 면적은 604㎢"라며 "이는 여수시를 비롯한 5개 시·군 가운데 가장 넓

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도군은 도서 254개 중 유인도서는 45개로, 정부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정주환경과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해 도서지역의 노령화와 무인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현 진도군의회 의장은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10년 주기로 수립한다"면서 "위기에 처한 도서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다양성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 조정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그린알로에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